

수서발 고속철 공사 예산 비리 의혹

검찰, GS건설 압수수색...건설사 설계·공법 변경 부당이득 혐의 제기

연말 개통을 앞둔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가 건설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 진통을 겪고 있다. 건설사들이 관행처럼 실시하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건설사 직원이 공법 변경을 통한 공사비 차익을 챙긴 혐의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3~2 구간 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GS건설이 고속철도 설계 변경으로 과도한 예산을 받아간 정황을 확인한 정부합동부패적결추진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GS건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GS건설 서울 본사와 경기 용인현장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평택 고속철도 3~2구 구간 공사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차익을 건설사 직원이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도권고속철도 공사비에 대한 부당 차익을 챙긴 혐의로 A씨 등 두산건설 직원 3명을 12일 구속했다. A씨 등 3명은 수도권고속철도의 성남 구간 공사 진행과정에서 거액의 공사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진동·저소음 공법을 통해 공사를 해야 하지만 비용이 저렴한 일반 발파 공법을 적용, 수십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설계변경은 그동안 철도건설업체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당초 설계변경의 취지는 보다 효율적인 공법을 적용하고, 현장에서 낭비요소를 줄이자는 것이었지만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최근 관행처럼 이뤄지며 공사기한도 늦어지고 사업비도 낭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달 열린 철도

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GS건설이 맡고 있는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3~2 구간에서 14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설계변경을 통해 1139억원이었던 총 사업비가 2797억원까지 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산건설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2공구에서도 설계변경이 14회 이루어지고, 공사비는 당초 낙찰금액인 1137억원보다 140% 1589억원이 늘어난 2726억원에 달했다는 게 정의원 측의 설명이다.

설계변경이 가장 많은 구간은 제5공구로 나타났다. 설계변경만 15회 이뤄졌으며 공사비는 47% 1027억원이 증액돼 총 3200억원이 됐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고속철도 공사에서 각종 부실 의혹이 있다”며 “GS건설뿐 아니라 철도시설공단과 다른 업체들도 문제점이 없는지 검찰이 상세하게 들여다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

더 커피니 / 린노알미늄 /

알루미늄 소재로 케이블 트레이 틸트시장 공략

금형 설계·제작서 최종 부품 출하까지 전 공정 원스톱처리

알루미늄 압출 가공 전문 업체인 린노알미늄(대표 이세영)은 최근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케이블 트레이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주력 분야인 자동차사업에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루미늄 케이블 트레이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울산에 위치한 이 회사는 1988년 공업용 로(爐) 생산기업으로 출발했다. 2009년 린노알미늄으로 사명을 바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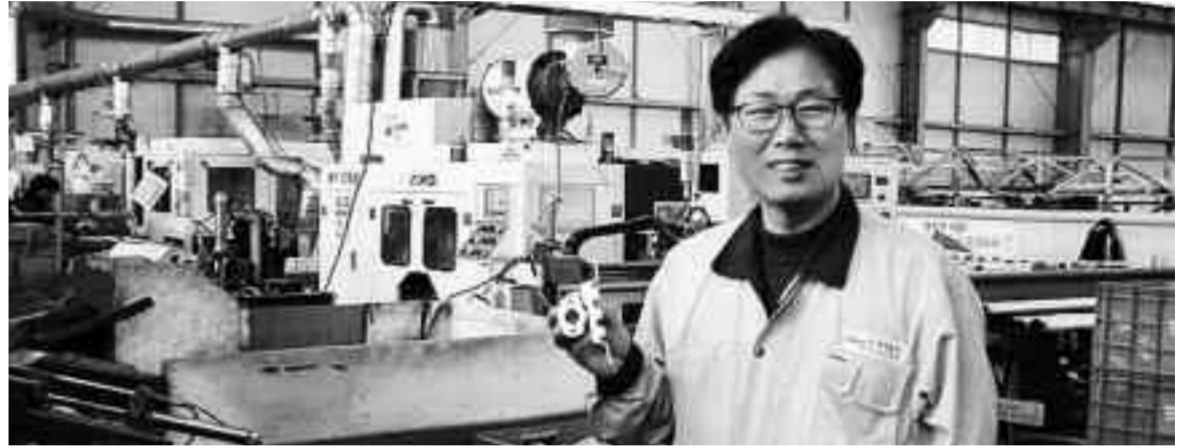
그대로 적용해 원가절감을 경쟁력으로 관련 시장 선점에 나섰다.

기존 케이블 트레이는 아연도금강판을 주로 사용해왔으나 최근에는 가볍고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이 대체소재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세영 린노알미늄 대표는 “알루미늄 케이블 트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내식성”이라며 “알루미늄 표면에 산화피막을 일으켜 영구적으로 사

공사에 맞춤형 제품을 납품해 품질과 기술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 제품은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케이블 래더(사다리형)가 아닌 덕트형 트레이로 발주처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해 제작했다”며 “가볍고 부식에 강해 터널이나 역사 등 철도용으로 쓰임새가 많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 연평균 1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알루미늄 소재 전문기업으로 거듭났다.

압출방식으로 알루미늄을 가래떡처럼 뿜어낸 뒤 용도에 따라 절단·가공하는데 주로 자동차용 부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알루미늄 압출 업체들이 소재 생산에 치우치는 것과 달리 린노알미늄은 금형 설계·제작·압출 생산·가공·최종 부품 출하까지 전 공정을 모듈화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방식은 케이블 트레이 분야에도

용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인 음료수 캔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또 알루미늄은 기존 아연도금강판보다 가벼워 건물공사 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시공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아연도금강판에 비해 비싸지만 관공시장에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와 피겨스케이팅 경기장에도 린노알미늄의 제품이 들어갔다.

얼마 전 린노알미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포항-영덕 구간 건설

국내 실적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현재 아시아권 국가에서 주문 제작을 요청, 첫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알루미늄이 아연도금강판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가볍기 때문에 강해 규모가 큰 건설현장의 경우 전체 시공비용은 오히려 더 저렴하다”며 “또 내식성이 강해 추가 유지관리비용도 들지 않아 고객 입장에선 알루미늄 케이블 트레이가 더 경제적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xixi@

내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본격 시행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 마련

내년 1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40일)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위해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제도 기반 마련과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 합

성화와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다.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을 개선했다.

이석희 기자

대우건설 2년 연속 ESG 지속가능성 우수 건설사로 선정

대우건설(대표 박창민)이 아시아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성(ESG) 성과 우수기업에서 24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국내 건설기업 중 유일하게 랭킹에 올랐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서스테널리틱스와 채널 뉴스 아시아(Channel News Asia), CSR 아시아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2016 아시아지역 기업 지속가능성 성과 우수기업(Channel News Asia Sustainability Ranking)' 100개 중에서 24위를 기록해 국내 건설 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순위에 들었다.

서스테널리틱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지속가능성(ESG) 리서치 회사로 전 세계 200여개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약 4,000개 글로벌 기업의 ESG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윤대원 기자

대구도시철도, 비상대처능력 강화

대명엔지니어링과 합동 분기장치 비상복구훈련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비상상황을 대비한 복구훈련을 실시했다.

13일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환)는 3호선 안전운행을 위해 철곡역전철차량기지에서는 이례사태 발생시 비상복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분기장치 비상복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훈련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분기기 제작업체인 대명엔지니어링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모터카, 크레인 등 30여종의 장비가 투입됐다.

분기기장치는 열차가 선로를 바꿀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장치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같은 단일 궤도법의 경우엔 열차 운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번 비상복구 훈련은 철곡역대병원역 회차선 분기기 장치의 기어모터 고장으로 인해 분기기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상해 실시됐다.

홍승환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3호선 열차 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기기장치와 관련 국내 전문업체와의 협동을 통해 비상대처능력을 향상시켰다”며 “앞으로도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더욱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제7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http://www.kirim55.com>

계량기함의 혁신!!

합성수지(ABS 난연) 제품을 경험해 보십시오!

▲계량기함 거치대

▲월패드 BOX

▲계량기함 2세대용

▲계량기함 3세대용

▲계량기함 4세대용

특장점

- 부식** 부식에 강하다!
염도와 습기가 높은 해안지역이나 습도가 많은 지하실 등 물과 소금기호 인해 녹이 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장소 등에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 유지** 유지관리 비용 거의 없다!
금속이 아닌 합성수지 재료로 제작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동결기 결로 현상 방지, 제품고체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안전** 가볍고 안전하다!
무게는 기존 제품 대비 1/3로 가벼우며, 쉽고 빠른 작업이 가능하여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및 절면저항이 없어 안전성 우수

생산물목

- 계량기함 전종목
- 월패드 BOX
- 세대 단 자함
- 통합 단 자함
- IDF 단 자함
- TV분배기함
- 약전 단자함
- 접지 단자함
- 조적 보강대

기림전기통신(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92번길 67(고색동 936) TEL : 031)292-6368(대) FAX : 031)292-6370